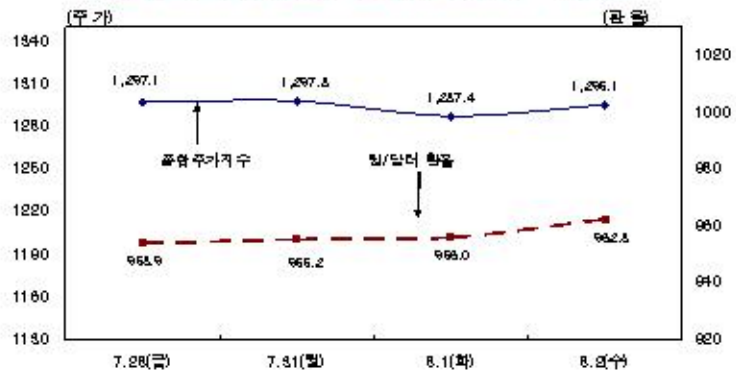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28~8.2)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경상수지 흑자 기반 약화 - 對日 무역 적자 해소로 풀어야 한다 1
- 주간 경제 동향 9
 - 실물 부문 :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 부진 심각 9
 - 금융 부문 : 국내 경기 부진 우려로 트리플 약세 시현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지식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경상수지 흑자 기반 약화 - 對日 무역 적자 해소로 풀어야 한다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2005년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4년 대비 116.1억 달러 감소한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는 -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감소분의 90.5%를 차지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확대(2005년 상반기 대비 26.5억 달러)와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동 48.2억 달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 이후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다시 능가하고 있어 對日 무역수지적자의 고착화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수지적자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 위기 이후 대일 무역역조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문제는 1973년 40.7%로 최고조에 달했던 對日 수입 비중이 2005년에는 18.5%까지 하락했고, 국민총소득 기준 對日 수입의존도도 1974년 13.6%에서 2005년 6.2%로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1973년 4.9억 달러에서 2005년 243.8억 달러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기간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술, 부품·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해 왔는데 이와 같은 對日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고도화에 따라 첨단기술 도입의 對日 의존도가 높아져,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액이 1980년 0.3억 달러에서 2004년에는 24.2억 달러로 80배나 증가했다. 둘째, 여전한 기술격차로 인해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미흡하다.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은 적게는 0.6년(조선산업) 많게는 5.5년(일반기계) 정도 일본보다 기술수준이 뒤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의 차이가 일본인들의 높은 자국 제품 선호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 상품의 일본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에게 뒤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저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상품들이 일본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對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 265.1억 달러를 기록, 243.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넷째, 일본의 비무역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 표준, 안전 등에 관한 규제나 폐쇄적이고 복잡한 유통 구조 등의 비무역장벽 등 일본시장 공략에 난점은 많으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인재 육성 및 활용 등의 노력 부족이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고착화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對日 무역수지 적자 지속 현상은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경상수지 흑자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으로 이루어진 Task Force팀을 마련하여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지식뱅크', '對日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정부 및 민간의 對日 전략에 활용하고,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對日 전략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통상대학원 설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신기술 개발 등 차별적인 對日 기술 및 산업 교류 중진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기술 및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일본시장 맞춤형 기술 및 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M&A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경상수지 흑자 기반 약화 - 對日 무역 적자 해소로 풀어야 한다 >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 87.5억 달러 감소 - 표면적인 원인은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 확대(2005년 상반기 대비 26.3억 달러)와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동 50.1억 달러) - 전체 경상수지 흑자 감소분의 87.3% - 실질적으로는 1965년 한일외교정상화 이후의 40년 이상 對日 무역수지적자 고착화 - 2000년 이후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다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능가
-------------------	--

경상수지 흑자폭
급감 원인

	현 상	원 인
對日 무역수지 적자 현상 고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244.4억 달러로 과거 최고 수준 - 보다 심각한 문제는 對日 수입 비중과 對日 수입의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의 급격한 팽창 - 1973년 40.7%에서 2005년 18.5%로 對日수입 비중 감소 - 1974년 13.6%에서 2005년 6.2%로 국민총소득 기준 對日 수입의존도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1973년 4.9억 달러에서 2005년에 243.8억 달러로 급팽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간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對日 의존적 경제 구조가 고착화 - 對日 기술도입액은 1980년 0.3억 달러에서 2004년 24.2억 달러로 급증 - 일본과의 기술수준 차이 지속 - 일본과 적게는 조선산업 0.6년 많게는 일반 기계 5.5년으로 기술격차가 있음 - 이러한 기술격차가 일본인들의 자국상품 선호 성향을 높여 진입장벽을 높임 - 중국의 급속한 일본시장 잠식 - 중국의 對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 265.1억 달러로 동년 한국의 적자 규모인 243.8억 달러를 능가 -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공략 노력 부족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으로 이루어진 Task Force팀을 마련하여 중장기 전략을 수립 - '일본지식뱅크', '知日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정부 및 민간의 對日 전략에 활용 - 일본동성대학원 등 대학 등의 교육 현장에서 對日 전략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미래 신기술 개발 등 차별적인 對日 기술 및 산업 교류 증진을 통해 점점 높아지는 기술 및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춤
----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술 및 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M&A를 통한 적극적인 일본시장 공략이 필요
----	--

□ 경상수지 흑자 기반 약화 - 對日 무역 적자 해소로 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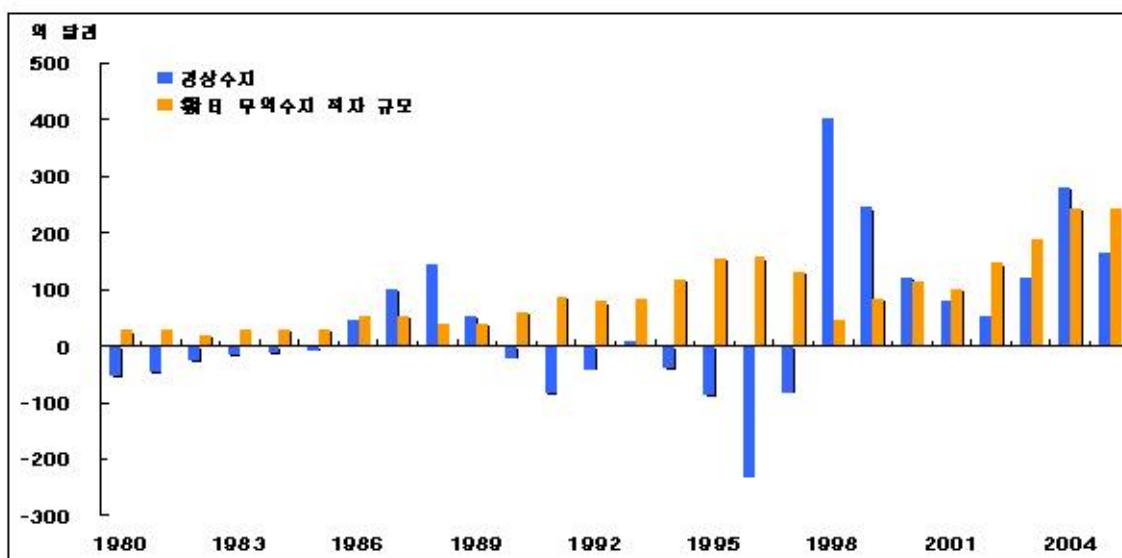
1.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급감

○ (원인) 지난 200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급감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악화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고착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의 주된 원인은 對日 무역수지 적자 : 200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5년 상반기 대비 87.5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동시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은 막대한 對日 무역수지 적자의 영향이 가장 큼

-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 상반기 67.3억 달러에서 2006년 상반기 93.8억 달러로 26.5억 달러 증가한 반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 상반기 178.6억 달러에서 2006년 상반기 130.4억 달러로 48.2억 달러 감소하여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규모를 더하면 전체 경상수지 흑자 감소분의 90.5%
- 그러나, 2000년 이후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다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능가하는 등 있는 등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안정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對日 무역수지적자의 고착화임

< 경상수지와 對日 무역수지적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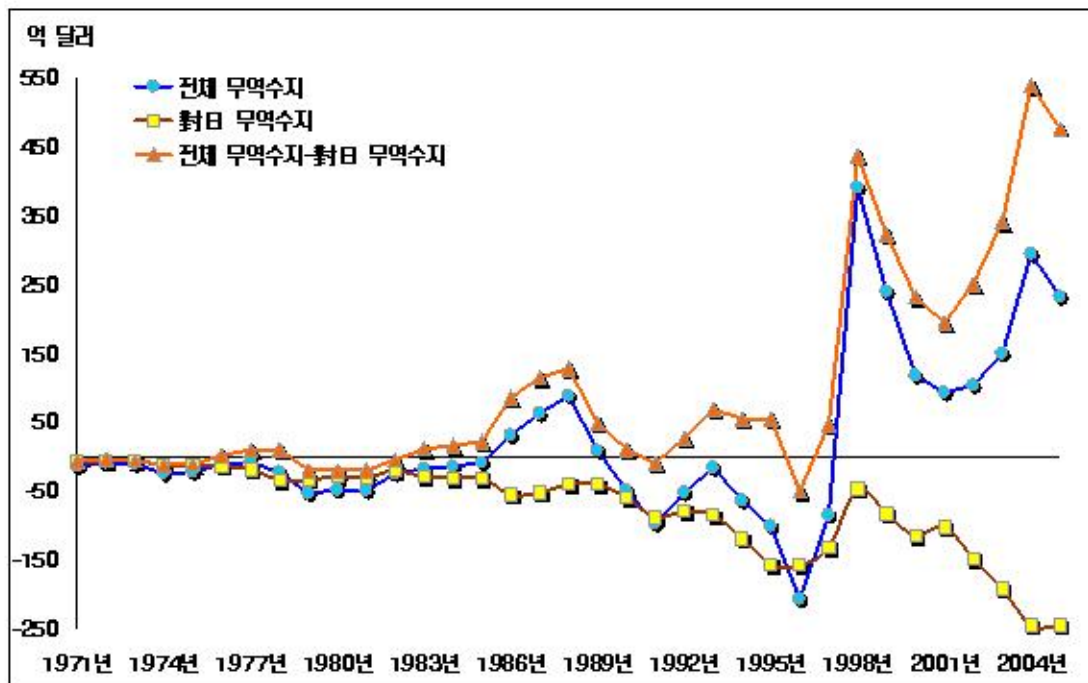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ITA.

2. 깊어지는 對日 무역역조 현상

○ (對日 무역역조 현상 심화)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역조 현상이 IMF 극복 이후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1971년~2006년 상반기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658.6억 달러에 이릅니다

- 對日 무역역조 현상 40년 이상 지속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40년 이상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역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1966년 우리나라의 對日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0.3억 달러였으며, 지난 2004년에 244.4억 달러로 최고 수준을 기록, 2005년에도 24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특히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우리나라는 對日 무역역조 현상이 없었다면, 1991년과 1996년을 제외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흑자 지속

< 무역수지 추이와 對日 무역수지 비교 >



자료: K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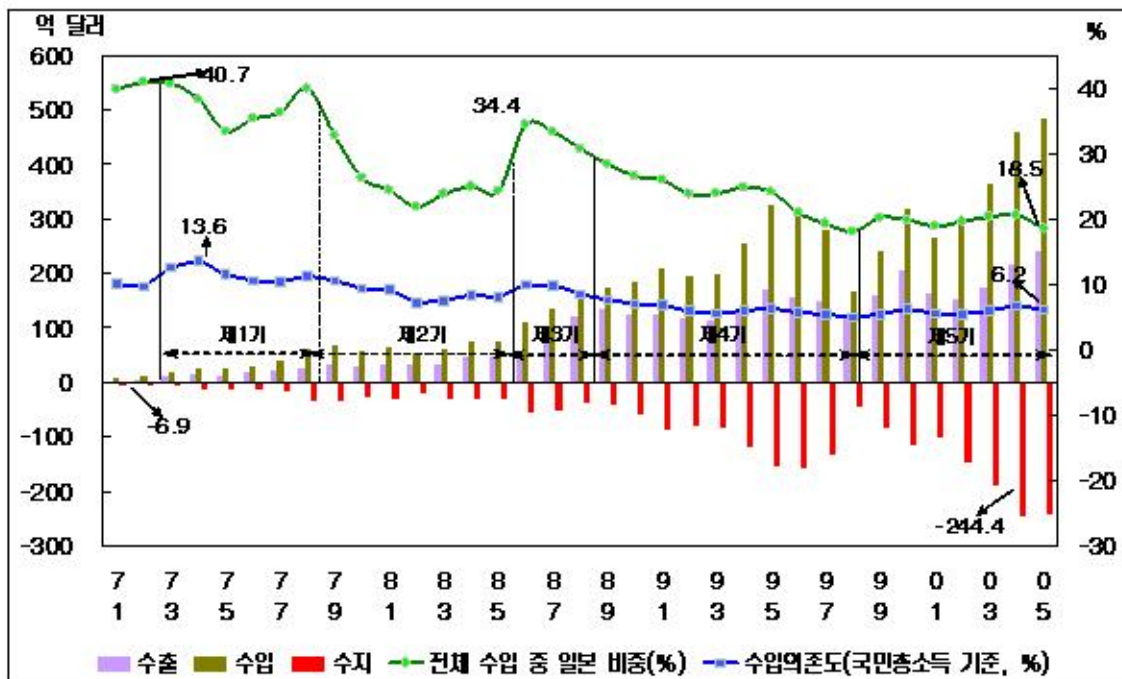
1) 산업자원부

3.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특징과 원인

○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특징) 1986년 이후 전체 수입 중 對日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對日 수입의존도 또한 하락하고 있으나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1973년 40.7%로 최고조에 달했던 對日 수입 비중이 2005년에는 18.5%까지 하락하였으며 국민총소득 기준 對日 수입의존도 또한 1974년 13.6%에서 6.2%로 크게 개선
- 그러나 같은 기간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4.9억 달러에서 243.8억 달러로 급증

< 對日 무역역조 추이 >



자료: 한국은행, KITA.

주: 수입의존도=對日 수입액/국민총소득×100.

-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시기별 특징 :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발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일 무역역조 현상이 최근에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로 인해 더욱 심화됨²⁾
 - 제1기, 1973년~1978년: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르는 설비투자의 증가로 일반 기계류 중심의 대일 의존도 증대
 - 제2기: 1979년~1978년: 1977년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에 따른 對日 수입증가율 하락으로 무역적자 규모 또한 30억 달러에서 정체됨
 - 제3기: 1986년~1988년: 3저 호황(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따른 수출 호조로 전자, 자동차 부문의 부품 및 소재 중심으로 對日 수입 확대
 - 제4기: 1989년~1997년: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핵심 장비의 수입증가로 對日 의존도가 심화됨
 - 제5기: 1998년~현재: 對日 부품 및 소재 의존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수입선다변화제도가 1998년에 폐지되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對日 수입이 확대됨

○ (對日 무역역조 현상 지속 원인) 對日 무역역조 현상은 과거의 압축 성장 전략, 기술 격차의 지속, 중국의 일본 시장 잠식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압축 성장 전략 :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 기반이 단기간 압축 성장을 이룩한 일본형 성장모델이었기 때문에 기술, 부품·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인접 일본에 대부분을 의존해 왔음
 - 특히, 본격적인 산업정책이 실시된 1962년(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 시행)부터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이 발표된 직후인 1978년까지 누적 對日 기술도입액(1.2억 달러, 734건)이 미국(0.7억 달러, 276건)보다 많아, 고도성장기 우리나라의 對日 의존도가 미국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술의 對日 의존도 심화로 對日 기술도입액이 1980년 0.3억 달러에서 2005년 24.2억 달러로 80배나 증가함

2)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은 1966년부터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그에 따르는 설비투자 증가로 일반기계류 중심의 대일 의존도가 증대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정책 선언'이 있는 1973년 1월을 기준으로 국가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주력했다고 보고, 對日 무역역조 현상 제1기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며, 이하 기간 구분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에 따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김종수, '한국경제 반세기 경제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2002년 11월 25일,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 기초 자료.

- 기술 격차 지속 :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조선 산업 뿐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아직도 적게는 0.6년(조선산업) 많게는 5.5년(일반기계) 정도 일본보다 기술수준이 뒤지고 있음
 - 결국 이러한 기술력의 차이가 일본인들의 높은 자국 제품 선호도의 원인으로 작용 한국 상품의 일본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³⁾

< 주요산업별 對日 기술경쟁력 >

(한국=100)

구 분	현황						전망	
	설계기술	기술/제품 개발력	생산기술	품질수준	종합	기술격차 (년)	2007	2010
석유화학	86.5	88.0	85.0	84.3	86.0	△3.7	95.0	98.5
가 전	80.3	82.0	89.4	85.6	84.3	△1.8	91.9	96.7
섬 유	79.6	79.4	84.6	88.4	83.0	△2.3	95.2	105.8
통신기기	80.6	81.0	86.0	83.4	82.8	△2.3	88.2	95.2
철 강	73.1	85.3	79.1	79.1	79.2	△3.8	89.3	93.8
반 도 체	77.5	75.0	77.0	81.5	77.8	△3.8	86.0	95.5
컴 퓨 터	70.7	72.0	78.3	75.0	74.0	△2.5	82.6	88.3
조 선	71.6	69.0	65.9	73.0	69.9	△7.0	86.1	94.4
자 동 차	60.1	63.2	68.9	68.0	66.0	△4.5	75.2	87.3
일반기계	59.0	56.0	68.7	66.7	62.6	△5.8	80.0	89.7

자료: 한국산업은행,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2004년.

- 중국의 일본 시장 잠식 : 한편, 중국의 對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 265.1억 달러를 기록, 243.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는 등 중국 상품들이 일본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음⁴⁾
- 기타 : 일본의 환경, 표준, 안전 등에 관한 규제나 폐쇄적이고 복잡한 유통 구조 등의 비무역장벽 등 일본시장 공략에 난점은 많으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인재 육성 및 활용 등의 노력 부족 또한 對日 무역역조 현상의 고착화의 큰 원인임

3) 2004년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goo'가 일본인 24,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75%가 'Made in Japan'을 구매 조건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4) 한국산업은행에 의하면 한중일 기술경쟁 현황을 구조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핵심부품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중급기술의 중간계 산업을 위주로, 중국은 저급기술의 소비계 생산구조로 특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한중일 3국이 결국, 한국이 핵심부품 및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조달하여 생산한 중간계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들 중간계를 활용하여 생산된 소비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른바 3자무역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한중일 3국이 기술경쟁구조상 1개국에게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다른 1개국에게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뜻함. 日本 財務省, 한국산업은행,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2004년.

4. 대응 방안

- (對日 무역역조 현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전략 필요) 對日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현상은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Task Force팀 마련 : 우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으로 이루어진 Task Force팀을 마련하여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임
 - 對日 무역수지 적자가 40년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고 산업간 기술격차 또한 아직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움
- (知日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및 육성·활용) '일본지식뱅크', '知日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및 민간의 對日 전략에 활용하고,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對日 전략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知日 네트워크 형성 :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을 잘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지식뱅크'와 같은 일본 정보 축적 및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知日派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對日 전략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對日 전략 인재 육성·활용 지원 : 한편 정부는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對日 전략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정부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자 인접국인 일본에 대해 청와대에 조차 수석급이나 비서관 등 일본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2005년 6월 20일 현재)⁵⁾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對日 접근 방법이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5) 매일경제신문, 2005년 6월 20일.

- (미래 신기술 개발 등 차별적인 對日 기술 및 산업 교류 증진) 한편 만성적인 對日 무역적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 개발 등 차별적인 對日 기술 및 산업 교류 증진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기술 및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춰야 할 것임
 - 차별적인 기술 교류 촉진 : 현재 일본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시행 중인데, 우리 정부는 민간이 이들 정책 지원을 받는 차세대 성장 기술과 교류를 통해 일본 기업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제산업성이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문부과학성이 지적창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 주체는 각 지방 또는 대학이나 민간이 주체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들과 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좁혀, 중장기적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차별적인 산업 교류 증진 : 정부는 對日 경쟁 우위 또는 경쟁 가능 산업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매칭 프로그램, 일본시장 공략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산업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기업은 적극적인 對日 시장 공략이 필요) 기업은 일본시장 맞춤형 기술 및 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M&A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일본 시장 공략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 부진 심각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한 2613억 달러, 수입은 18.4% 증가한 254.6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6.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수출 비중 1~3위 국가인 중국, 미국, EU 수출 부진 심각 - 수출은 파업에 따르는 자동차 수출 차질 (-30.6%), 저가 시장 공략 실패에 따르는 무선통신기기의 부진 (3.4%)으로 6월의 18.6% 증가율보다 하락한 12.4%를 기록함

- 특히 우리 수출 비중 1위와 2위 국가인 對中 수출 (수출 비중 7월 기준 23.1%) 과 對美 수출 (12.9%) 증가율이 각각 5.2% 및 2.9%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냄 (EU -4.0%)

美中 경제 성장 둔화, 환율 하락 등으로 향후 수출 경기 하강 불가피

- 수입은 원유 수입 증가율이 30.9%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확대 (18.1% 증가)되었으며, 국내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도 6.5% 증가에 그침
- 하반기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 경기 하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2/4	3/4	4/4	1/4	2/4	6월	7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3.2(1.4)	4.5(1.6)	5.3(1.6)	6.1(1.2)	5.3(0.8)	-	-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3.4	4.4	6.8	5.0	5.4	5.2	-
		설비투자추계	1.4	3.2	1.4	1.1	7.0	4.3	4.2	2.9	-
		건설수주	-3.9	9.5	38.5	15.8	-17.9	-9.7	-14.1	-7.7	-
		수출	31.0	12.0	9.0	15.4	11.4	10.6	17.1	18.6	12.4
	공급	산업생산	10.2	6.3	3.5	7.1	10.3	12.0	10.9	10.9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13	2,303	2,303	2,258	2,341	2,350	-
		실업률 (%)	3.7	3.7	3.7	3.6	3.5	3.9	3.4	3.4	-
		수입	25.5	16.4	15.2	21.1	14.6	19.0	19.8	21.9	18.4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6	27	54	-11	9	11	-
무역수지 (억\$)		294	232	60	49	61	18	55	22	7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3.0	2.3	2.5	2.3	2.4	2.6	2.3	
	생활물가	4.9	4.1	4.5	3.4	3.4	3.2	3.0	3.4	2.9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내 경기 부진 우려로 트리플 약세 시현

○ (해외 금융 시장) EU 및 일본 경기 지표 호조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美 정책 금리 동결 가능성 상승으로 美 국채 및 日 국채 금리 하락

- 금리: 美 6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주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는 9일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하락세로 반전 (美 국채 10년물 : 5.03 → 4.98%)

- 환율: 獨 6월 소매판매 증가율 상승(-0.4%→1.9%) 日 6월 산업생산 호조(-1.3%→1.9%) 등으로 EU 및 일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시현 (\$/€ : 1.2693→1.2819, ¥/\$:115.43→114.41)

○ (국내 금융 시장) 국내 경기 부진 우려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 하락

국내 경기 관련 지표 실적 악화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의 트리플 약세 시현

- 주가: 해외 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부진 우려에 따르는 외국인 매도세 강화로 소폭 하락 (1,297.1→1,295.1)

- 금리: 6월 산업활동 부진, 7월 소비자 물가 안정, 美 정책 금리 동결 가능성 대두 등으로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4.86%→4.80%)

- 환율: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관련 지표 부진, 외국인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주 말 953.9→962.3)

○ (전망)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 지속으로 조정 국면 장기화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4	2005				2006			
		1/4	2/4	3/4	4/4	1/4	7.28	8.2	
국내	거래소 주가	895.9	965.7	1,008.2	1,221.0	1,379.4	1,359.6	1,297.1	1,295.1
	국고채3년(%)	3.28	3.91	4.02	4.60	5.08	4.93	4.86	4.80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1,011.6	971.6	953.9	962.3
해외	DOW	10,783	10,504	10,275	10,569	10,718	11,109	11,100	11,126
	Nikkei	11,489	11,669	11,584	13,574	16,111	17,060	15,343	15,464
	미국채10년(%)	4.22	4.48	3.91	4.32	4.39	4.85	5.03	4.98
	일국채10년(%)	1.44	1.33	1.17	1.48	1.48	1.78	1.84	1.79
	달러/유로	1.3556	1.2964	1.2108	1.2026	1.1849	1.2118	1.2693	1.2819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51	117.75	117.78	115.43	114.41
두바이(\$/배럴)	33.11	45.91	52.09	56.32	53.19	59.16	69.45	70.52	